

2010. 4. 19 제237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4. 19 제237호

문화·디자인

1. 창조적 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펀드 조성 (런던)
2. 문화 및 예술가 지원정책으로 문화관광객 대폭 증가 (베를린)

산업·경제

3. 녹색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파크 조성 (베를린)
4. 항공사와 공동광고 협약을 맺어 관광객 유치 촉진 (뉴욕)
5. 창조산업 지원 웹사이트 '산업입지 내비게이션' 개설 (도쿄)

건강·복지

6. 가족 병간호를 위한 직장 단축근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 (독일)
7. 장애인 가정에 '단기 보호자 서비스' 제공 (영국 브리스틀市)

방재·안전

8. 재해 발생 시 현장에서 긴급처치를 하는 의료지원팀 확대 (도쿄)

도시환경

9. 저탄소 존 10개소 지정 (런던)
10.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과 협정 체결 (도쿄)

도시교통

11. 자전거 안전이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런던)
12. 자전거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베를린)

도시계획 · 주택

13.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재탄생한 관광명소 '와이탄' (상하이)
-

문 화 · 디 자 인

1. 창조적 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펀드 조성 (런던)

○ 런던시는 예술과 창조산업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는 기회를 시민에게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런던 문화기술펀드’(2012 London Cultural Skills Fund) 조성 사업을 실시함.

- 펀드 조성사업은 소규모 기관과 커뮤니티가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도록 설계됨. 2012년 올림픽 기간에 다양한 문화 축제를 열기 위한 목적도 있음. 문화에 관심이 있고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직접 고안한 창조적인 문화프로젝트를 구체화 하도록 재원을 제공함.

- 이 펀드는 ① 문화와 창조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거나 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② 예술과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 ③ 문화 소외계층에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 등에 지원됨. 지원 규모는 2만 5000파운드(4250만 원) ~5만 파운드(8500만 원)임. 주요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음.

- 지방정부나 제3섹터(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지역 협동조합 등) 분야 종사자에게 지원함.
-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어야 함.
-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장려하고 커뮤니티의 단결과 다양성을 촉진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이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수혜 대상은 런던에 거주하는 시민이어야 함.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355)

2. 문화 및 예술가 지원정책으로 문화관광객 대폭 증가 (베를린)

○ 베를린 관광마케팅 회사가 2008년 12월부터 베를린 시내 주요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12곳의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문화관광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베를린 관광마케팅 회사는 독일연방 관광공사의 베를린지부로, 주로 베를린시의 관광 홍보와 관광산업 촉진 사업을 펼침.

-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술관 방문객의 76.2%가 외부 관광객이고, 이 중 33.7%가 외국인 관광객임. 외부 관광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유대인 박물관으로 관광객의 비율이 89.8%임. 국립 오페라극장이나 국립 발레극장도 관광객이 41%를 넘고 이 중 외국인이 9% 정도 되며 베를린 시민은 31%임. 이번 조사결과 는 베를린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활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 일반관광보다 오래 체류해야 하는 문화관광은 도시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문화관광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업종은 호텔업이며 유관 관광업계에서도 큰 수익을 올림. 이는 문화와 관광이라는 두 요소가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임.

- 市는 베를린에 수많은 예술가가 모여 이들이 도시에 활기 있는 문화경관을 만들어 낸 결과라고 평가함. 베를린은 유럽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함. 또한 활기 있고 다양한 예술시장이 조성되어 있고 생활보조금, 공연 및 전시 보조금, 작업공간 대여 등 다양한 예술가 공공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市는 앞으로 도 문화와 예술가를 위한 공적 투자를 지속하고 문화관광 모니터링 대상기관도 점차 늘릴 계획임.

· 베를린에는 약 5000명의 미술가, 1500개의 팝 또는 록 그룹, 500명의 재즈 음악가, 103개의 오케스트라, 1500개의 합창단, 300개의 극단, 1000명의 무용가 등이 직업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3/26/160048/index.html)

(www.berlin.de/sen/kultur/foerderung/)

산 업 · 경 제

3. 녹색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파크 조성 (베를린)

○ 녹색경제, 즉 재생에너지 이용과 환경보호 기술 분야 특화 산업단지인 ‘청정기술 비즈니스 파크’가 베를린에 조성될 예정임. 청정기술 비즈니스 파크가 들어서는 곳은 市 동북쪽인 마찬-헬러스도르프區의 도심 산업지구인 이스트사이드이며, 약 2년에 걸쳐 건설함. 市 경제국은 기본적인 인프라 건설을 위해 2120만 유로(약 321억 원)를 지원할 계획임.

- 이 비즈니스 파크에 우선적으로 들어설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태양열에너지 기술 분야임. 독일에서 태양열에너지 회사가 가장 많은 베를린은 전문인력, 기술혁신 등의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로 평가받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3/30/160403/index.html)

이용자 맞춤형 긴급정보 전송 시스템(Notify NYC) 구축 (뉴욕)

- 뉴욕市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공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특히 긴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씀. 자신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관심지역을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면 휴대전화, 이메일, 아이폰 등으로 긴급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시민은 원하는 매체를 이용해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일일이 검색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http://a858-nycnotify.nyc.gov/NotifyNYC/Home.aspx>)

4. 항공사와 공동광고 협약을 맺어 관광객 유치 촉진 (뉴욕)

○ 뉴욕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간 미국 전역에 뉴욕시를 홍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대형 항공사인 American Airline, JetBlue와 2010년 3월 체결함. 이 협약에는 뉴욕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늘려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됨. 이번 협약 체결은 뉴욕시의 마케팅과 관광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NYC & Company가 주관함.

- 시는 '잠시 들러 머무는 도시'란 슬로건으로 이번 협약 체결에 힘써 왔음. 시의 의도는 여행의 최종목적지가 뉴욕이 아니더라도 뉴욕을 경유하도록 하여 뉴욕이란 도시를 잠시라도 즐기도록 하자는 데 있음.

· 미국에서는 중소도시 간 직항노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경유해야 함. 시는 이들을 뉴욕 도심으로 끌어들이 수만 있다면 관광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뉴욕에 있는 존 에프 케네디 공항과 라구아디아 공항을 중심으로 국내선 항공노선을 늘리는 데 약 3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시는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2009년 약 300억 원의 수익 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도시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009년 외국인 관광객이 다소 감소했는데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로 선정된 것은 내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세가 있었기 때문임. 세계 제2위 항공사인 American Airline과 2009년 본사를 뉴욕으로 이전한 JetBlue 역시 이번 협정 체결로 홍보효과를 기대함.

-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은 서울에서 항공편으로 5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음. 국내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도 서울을 경유하도록 하고 이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이 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www.nyc.gov/html/om/html/2010a/pr135-10.html)

5. 창조산업 지원 웹사이트 '산업입지 내비게이션' 개설 (도쿄)

○ 도쿄는 사람, 물자, 금융이 집적되어 있어 새로운 산업이 태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일본에서 가장 큰 지역임. 이러한 산업입지 환경에 주목한 도쿄都는 더욱 고도화된 산업 분야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도내 區와 市町村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2010년 3월 기업용 정보사이트 '산업입지 내비게이션'(http://tokyo-ritti.jp)을 개설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도시형 창조산업을 지원하기로 함.

- 이 웹사이트는 ① 종류별(공업단지, 임대형·아파트형 공장, 창업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 또는 지역별 토지 및 건물 정보, ② 도내 54개 區와 市町村 등의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기업 지원 정보, ③ 각 지역의 특징적인 산업활동 현황 등을 제공함.

· 지역별 특색은 ① 도심·부도심, ② 남부·동부, ③ 북부·서부, ④ 다마 지역 등으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고, 토지·건물·시설은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음. 都는 향후 한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지원 홈페이지도 만들어 대상을 해외 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3/20k3t700.htm)

(http://tokyo-ritti.jp/region/ui72b20000001v5e.html)

사무실 수요자와 소유주를 서로 연결해주는 웹사이트 개설 (런던)

- 런던市는 증가 추세인 업무용 빌딩의 공실률을 줄이고 중소 규모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런던의 새로운 사업'(London New Enterprise)이란 이름의 웹사이트(www.anyspacedirect.co.uk)를 개설함. 市와 영국 부동산협회 등이 공동 개발한 웹사이트는 예비 창업자가 사무실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건물 소유주는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 사무실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市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회사에 비즈니스, 법률, 재정 관련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launches-new-website-help-london-new-businesses-and-property-own)

6. 가족 병간호를 위한 직장 단축근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 (독일)

○ 독일의 근로자는 2008년부터 시행된 ‘간병 기간법’에 따라 병간호가 필요한 가족이 생길 경우 일정 기간 직장을 휴직하거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음. 이 법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불안 없이 직장생활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가족의 질병이 가벼운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연방 가족부는 휴직보다는 단축근무 신청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2010년 3월 ‘간병 기간법’ 개정안을 마련함. 개정안은 단축근무(반일 근무)를 하면서 가족 병간호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이 기간에는 기존 월급의 3/4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병간호 기간이 끝나면 정상 근무를 하되 월급은 단축근무 때와 똑같이 3/4을 근로자가 받도록 규정함. 이 경우 고용주는 단축근무 기간에 근무시간에 비해 더 지급한 금액과 정상근무 복귀 후 덜 지급하는 금액이 같아지는 시점까지 삭감된 월급을 지급함.

- 경영자단체는 단축근무 기간에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을 더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함. 이에 연방 가족부는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강제하거나 보증하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노인 간병을 사회적 차원에서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임.

- 현재 독일에서 병간호가 필요한 노인과 병약자는 약 220만 명임. 노인의 경우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원보다 집에서 간호받기를 원함. 노인을 집에서 간호할 경우 병원이나 요양원에 맡길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요양보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www.tagesschau.de/inland/familienpflegezeit106.html)

7. 장애인 가정에 '단기 보호자 서비스' 제공 (영국 브리스틀시)

○ 브리스틀시는 중앙정부가 2010년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사회적 보육 주간'(Share the Care Week) 캠페인에 맞춰 장애인 가정에 '단기 보호자 서비스'(Short Break Carers Service)를 제공함. 시는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주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장애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함.

- 시는 신규 자원봉사자를 위해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며, 보육서비스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수당도 지급함. 시의회 유아·청소년위원회는 단기 보호자 서비스가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빈번하게 요청하는 서비스이며, 자원 봉사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열정과 시간만 있으면 된다는 점을 강조함.

(www.bristol.gov.uk/ccm/content/press-releases/2010/mar/can-you-give-a-little-time-and-make-a-big-difference.en)

엑스포의 경제효과가 북경올림픽의 3.5배가 될 것으로 추정 (상하이)

- 상하이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엑스포를 황푸강(黃浦江)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 상하이를 세계 비즈니스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 황푸강 주변 지역은 공장부지가 많고 빈민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곳으로 시는 엑스포를 계기로 지역 개발, 산업 구조조정, 도시환경 미화 등을 추진해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임.
-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엑스포 사무국은 상하이 GDP를 3~5% 높일 것으로 예측하고, 상하이재경대 엑스포경제연구소는 2008년 북경올림픽 때보다 3.5배가 많은 794억 7700만 위안(약 12조 91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시 관광국은 2010년 관광수입이 2008년에 비해 50% 많은 3100억 위안(약 5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측함.

(<http://sh.xinmin.cn/minsheng/2010/03/13/3993408.html>)

8. 재해 발생 시 현장에서 긴급처치를 하는 의료지원팀 확대 (도쿄)

○ 자연재해나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는 긴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의료처치가 지연되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음. 조사에 따르면 재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약 48시간 정도 의료 공백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도쿄도는 사고 현장에서 직접 의료처치를 하는 재해 의료 지원팀 ‘도쿄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를 2004년 구성함.

- 일본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쿄 재해 의료 지원팀은 의사나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참여하는 연계병원은 발족 당시 7개에서 2010년 19개로 늘어남. 의료 지원팀은 구조 현장에서 긴급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동하며 지금까지 248회 출동해 큰 활약을 펼침. 현재 도내 2차 의료기관이 모두 연계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구급센터가 있는 3차 의료기관도 추가 지정하여 2011년에는 25개 병원으로 확충할 예정임.
- 의료 지원팀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일간 야외 실기훈련 등 연수를 받아야 하고 평상시에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훈련을 실시함. 2010년 3월에는 고속도로상의 다중 추돌 사고에 대비해 소방구급대, 인명 구조대 등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사고현장으로 가 부상자에게 긴급 의료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함.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다중추돌 사고의 경우 의료진의 현장 접근과 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많아 긴급처치가 더욱 절실히 필요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3/20k3i500.htm)

도 시 환 경

9. 저탄소 존 10개소 지정 (런던)

○ 런던시는 2010년 3월 지역 주민과 학교,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친환경산업 분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0개의 '저탄소 존'(Low Carbon Zones)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감. 저탄소 존에서는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20.12% 절감해야 함. 시는 이를 위해 300만 파운드(약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저탄소 존으로 지정된 한 자치구에서는 실업자를 '공인 에너지평가자'로 채용해 지역 주민에게 '카 셰어링'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 시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함.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정을 위해 '이산화탄소 대출'(Carbon Loan) 제도도 실시할 예정임.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태양열 집열판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함. 자치구 주민 150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의 주식을 자발적으로 구입하기도 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londons-energy-busting-low-carbon-zones-go-live)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 수리비용 대출 (영국 브리스틀시)

- 브리스틀시는 웨섹스 주거개선 용자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저리(低利)로 주택 수리비용을 대출해주고 있음. 대출기간은 13년 만기로 초기 2년까지는 낮은 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시의회는, 이들이 구입한 주택들은 대부분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대출 제도가 수리·개선비용을 충당하고 시가 정한 적정 주택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www.bristol.gov.uk/ccm/content/press-releases/2009/oct/new-financial-help-for-first-time-house-buyers-in-bristol.en)

10.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과 협정 체결 (도쿄)

○ 도쿄도는 2007년부터 都 소유 시설을 대상으로 녹색전력(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근 대상을 업무용 건물에까지 확대하고 풍부한 자연에너지가 있는 지방과의 연계도 본격화함.

- 都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간 재생에너지 공급협정 체결을 추진 중임. 2009년 12월 치요다區가 아오모리縣과 협정을 맺고 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 파트너도 모집함. 都는 이 사업을 2010년 3월 都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재생에너지원 부존량이 많은 홋카이도, 이와테縣, 아키타縣, 야카기타縣 등 동북지방을 추가해 '재생에너지 지역 간 제휴에 관한 6都道縣 협정'을 체결함. 이는 都가 4월부터 실시하는 '업무용 건물의 온실가스 총량 감축 의무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 제도'를 뒷받침하는 조치이기도 함.
- 이번 협정에서는 각 지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도쿄都: 도내 수요자가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재생 에너지 이용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시행함.
 - 협정을 체결한 지방: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과 생산에 힘쓰고,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도쿄都에 공급하여 저탄소 사회 구성에 기여함.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도모함.
- 都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① 녹색전력의 다양한 수요처(업무용 건물 등)를 개척하고, ② 풍력 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都로 직접 송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③ 기업, 금융기관, 비영리기관 등이 협정 체결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④ 국가 및 관계기관이 재생에너지 판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3/20k3va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3/20k3va01.htm)

11. 자전거 안전이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런던)

○ 런던시는 자전거 이용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문제라고 보고, 자전거 안전이용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2010년 3월 ‘자전거 안전이용을 위한 실행계획’(Cycle Safety Action Plan)을 수립함. 이 실행계획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 권고사항과 자전거 안전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제시함.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 권고사항과 관련해 시는 수십억 원을 들여 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교육프로그램인 ‘따라잡기’(Catch Up with Bicycle)를 시행하고, ② 경찰관, 전문 자전거 이용자 등과 함께 통근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금요일에 자전거 타기’(Cycle Friday) 행사를 개최하며, ③ 자전거 임대 프로그램과 함께 제정한 ‘자전거 이용수칙’을 홍보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에 힘쓰고 있음.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시는 ①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② 런던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자전거 고속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조성하며, ③ 자전거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④ 자전거가 화물차에 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측면 보호대 설치를 화물운송업체에 요구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며, 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서로 보호하는 자전거 안전 교육도 실시함.

(www.london.gov.uk/priorities/transport/cycling-revolution/cycle-safety-and-training)

12. 자전거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베를린)

○ 베를린시의 자전거도로가 1998년 이후 50% 증가한 것과 비례해 베를린에서는 자전거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부상함. 자전거의 대중교통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독일 철도 렌트 회사(DB Rent GmbH)의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임.

- 市는 독일연방 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2010년 3월 독일철도 렌트 회사가 운영하는 기존의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함. 시범사업은 기술과 조직 혁신으로 시민이 좀 더 쉽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 자전거를 주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선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市는 지하철역과 철도역 등 11곳에 첨단 자전거 대여 및 주차 시스템을 갖춘 공공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자전거 150대를 비치하여 300명의 시민이 5월 22일까지 2개월간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함. 이용자가 전자카드로 인증 절차를 거치고 터치스크린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면 자물쇠가 자동으로 풀림.

-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여와 반납 방법을 찾기 위해 2가지 방식을 실험함. 하나는 자전거를 처음에 빌렸던 주차장에 반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전거를 반납할 주차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임.

- 새로운 자전거 대여시스템의 시범운영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올 경우, 2010년 여름에 50개의 공공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1000대의 자전거를 비치할 계획임. 또한 공공자전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대중교통 승차권으로 공공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대여요금체계를 대중교통 요금체계에 통합할 방침임.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003/nachricht3815.html)

(www.stadtradberlin.com/system.htm)

13.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재탄생한 관광명소 '와이탄' (상하이)

- 상하이 최고의 관광명소인 와이탄(外滩)이 33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10년 3월 시민에게 공개됨(사진 참조). 2007년 4월부터 40억 위안(약 65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개조공사를 벌여 60여 개의 새로운 시설 등을 확충함. 새롭게 변모한 와이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친환경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함. 강변 산책로를 과거보다 40%가량 긴 2.6km로 늘리고 분수대, 화단 등을 설치함. 공공공간을 늘려 이곳에 녹지공간과 광장 등을 조성하고 버스정류장 주변과 와이탄 공원 등에 시민 휴식공간을 설치함.
 - 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함. 11차로의 도로를 6차로로 줄이고 2개의 지하터널을 뚫어 버스와 자동차가 이용하도록 하고 주차장도 설치함. 예전에는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도를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에 와이탄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횡단보도를 설치함.



-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확충함.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턱을 없애고 평지 보행환경을 조성함.
- 볼거리를 다채롭게 꾸밈. '커플 벽'과 '중국판 월스트리트 황금소 상(像)'은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북와이탄에서는 음악분수가 연출하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음. 황푸강(黃浦江) 연안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음악분수는 길이가 230m에 달함. 市는 음악분수의 배경음악을 고르는 시민 투표를 실시해 최종 10개 곡을 선정하고 이를 엑스포 기간에 활용할 계획임.

(<http://stock.sohu.com/20100329/n271172023.shtml>)

세계적인 전문가로 교통 분야 투자자문단 구성 (런던)

- 런던市는 교통 분야 투자사업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문단을 발족함. 투자자문단은 기술, 교통시설, 상업, 사업관리, 토지개발, 환경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런던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함.
- 런던교통공사는 런던의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교통 기반 시설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자문단은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됨.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8개 지하철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② 도심 관통 열차노선 신설, ③ 자기부상열차와 지상철 노선 확대, ④ 자전거 및 도보여행 지원시설 혁신, ⑤ 교통 분야 공공시설 개선, ⑥ 청정 친환경 버스 도입 등이 있음.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런던교통공사 사업예산의 2/3에 해당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5095.aspx)